

인생이라는 무대에 조연인 우리들을 위한 행복 로맨스

주와민



2009.3.27(금) ~ 5.17(일) **미리내**소극장

평일 오후 7시30분 | 토, 일, 공휴일 오후 4시 (화요일 공연없음)

문의 | 미리내 소극장 (504-2544) <http://cafe.daum.net/acen2000>

예매 | 인터파크(1544-1555) 옥션티켓(1566-1369) 사랑티켓

극단 아센 제23회 정기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전용공간지원 사업 선정작

연출 | 호민 출연 | 구민주, 호민 제작 | 극단 아센 주최, 주관 | 미리내소극장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상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연출 호 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진실에 대한 가치척도의 기준이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이나 목소리 볼륨의 크기나 혹은, 지위의 상하에서 오는 막무가내 식의 실행력으로 점철되어지는 현대인의 척박한 생활 속에서 민심은 인생과 사회,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감으로 가득 차고, 신산한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간다.

그리하여 우리네 일상은 노출되어진 매스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환상을 꿈꾸며 자위하고 돌아보는 현실 속, 자괴감만 가득 찬다.

하지만 여기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삶의 엑스트라로 살아가면서도 아름다움과 진솔한 사랑을 추구해가며 스스로의 인생을 밝고, 건강하게 채워나가는 두 사람 “주와 민”

한 식당의 여종업원과 신입 요리사라는 사이로 만난 이들은 소년, 소녀와 같은 사랑을 꿈꾸고, 자아의 진정성을 추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이 떳떳하다.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구준표'도 아니고, 고급 승용차와 호화로운 저택도 아니며, 평생 써도 다 못쓸 돈의 홍수도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원하고, 좀더 아끼고 사랑하며, 나와 주변이 슬프지 않을, 안타깝지 않을 만큼의 하루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 뿐이다.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을 어느 정도 맛 본 30대 후반의 여자 '주'와 40대 중반의 남자 '민'. 환상을 꿈꾸기 보다는 일상의 솔직한 대범함을, 가진 자에 대한 부러움 보다 없는 자들 간의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의 만남은 그래서 차라리 더욱 인간적이며, 더욱 열정적이고, 희망 가득 찬 우리의 자화상이자, 시대의 주인공들이다.

'주'와 '민'의 만남은 일상의 희망이며, 인간의 진솔함이며, 변치 않을 사랑의 변주곡이다. 조금은 어눌하고, 약간은 속되 보이며, 어느 정도 인텔리하지 않은 '주'와 '민'의 유쾌하고 밝은 다툼질! 그 안에 젖어 드는 평범한 인간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이야기.

당신이 잊고 지냈던 순수한 인생의 진솔한 사랑을 찾고 싶다면, 지금

'주'와 '민'을 만나보세요^^



극장에 오면 제일 먼저 밥통을 열어 본다.

오늘 올 인원을 체크하고 밥을 얼마나 해야할지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을지를 결정하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카페에 들어가 새글이 올라와 있는지, 새로 가입한 회원은 몇 되는지, 예매율은 어찌 되는지 그리고는 블로그에 들어가 방문자의 새글이 있는지 확인하며 더러는 이렇게 몇자를 적어 본다. 날씨에 대해 마음에 대해 생활에 대해.

'주와민' 공연이 이번주로 다가오면서 마음의 몸의 초긴장이다.

새학기의 시작과 각자의 특수사항들로 인해 일 할 손은 턱없이 모자란 상태로 있는 손으로 강행하고 있다.

언제나 모자라고 열악한 여건에서 굳건하게 해왔지만 할 때마다 닥치게 되는 현실의 열악에 익숙되지는 않는다.

한번 아팠던 상처여서 다음번엔 아프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는 바보가

세상에 이미 없는것 처럼 힘든건 언제나 부닥칠 때마다 힘든 것이다.

더러는 사랑도 지겨울때가 있는데 하물며 일을 한다는 게에 한결 같을수야.

그러나 반드시 해야할 일이기에 이 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공연도 '감동의 무대'가 되게 열심히 열심히....

지금은 머리는 비워둬야 하는 시기.....몸만을 혹사 시켜야 하는 시기...

구 민 주

연출 호 민 | 조명 김 희 지 | 음향 김 하 림

제작 극단 아센 | 주최,주관 미리내소극장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협찬 영진인쇄출판

아름다운 사람 구민주, 호민

행복한 연극 <주와 민>은 나에게도 기대가 큰 작품이다. 20년이 넘는 세월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연극 속에 외길만을 걸어오신 두 대표님의 마음이 아련히 느껴지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대박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진정한 마음이 담긴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맘이 간절하다. 그 속에서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스며 올라오는 그 행복함들을 함께 느끼고 싶다.

- 기 획

